

# 전남 볼링, 대통령기 전국대회 선전

금 2·은 5·동 7개 획득  
전남과학대 3인조 우승  
곡성군청은 5인조 우승  
세한대·고흥군청도 맹활약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 5인조에서 우승한 곡성군청 볼링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볼링팀들이 제37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에서 선전했다.

16일 전남볼링협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볼링팀이 최근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서정민·송세정·김동현(전남과학대)은 남자대학부 경기에서 총점 2713점(평균 226.1)을 따내 3인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정민과 김동현은 남자 대학부 마스터즈 경기에서 각각 2349점(평균 234.9), 2340점(평균 234.0)을 획득,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다.

권혜인(전남과학대)은 여자대학부 개인전에서 874점(평균 218.5)점을 기록, 은메달을 손에 넣었다.

같은 대학 임재원·이지원·한미향·최한울·권혜인·정운경은 5인조 예선에서 2위, 최종 tv파이널 결승전에서 3위에 올랐다.

박대희·강태영·송승민(세한대)도 남자대학부 3인조 경기에서 2618점(평균 218.2)을 확보, 전남과학대와 배재대에 이어 동메달을 수확했다.

같은 대학 송승민·김호진·강태영·김준상·이승철·박대희는 5인조 경기에서 3위, 최종 tv파이널 결승전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곡성군청과 고흥군청은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하유림(곡성군청)이 849점(평균 212.3)으로 개인전 동메달, 장미나(곡성군청)가 2232점(평균 223.2)으로 마스터즈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영승·김예슬·김문정·하유림·김현미·장미나(이상 곡성군청)는 5인조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최종 tv파이널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미소·남은설(고흥군청)은 2인조 경기에서 1673점(평균 209.1)으로 동메달, 이송원(고흥군청)은 3298점(평균 206.1)으로 개인종합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복음(광양시청)이 총점 2361점(평균 236.1)으로 남자일반부 마스터즈 동메달을 확정했다.

같은 팀 최복음·백종윤·백승민·박재훈·가수형이 5인조 경기에서 총점 4510점(평균 225.5)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종남 전남볼링협회장은 "전남볼링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한 감독님들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른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국수산맥 국제바둑' 최강자는 신진서

결승서 변상일 누르고 우승...전남서 사흘간 열전 성황리 막 내려

제8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나흘간의 뜨거운 열정을 마치고 지난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강진군, 영암군, 신안군이 후원한 대회로, 영암·강진·신안군이 순회하며, '세계프로 최강전'과 '국내프로 토너먼트', '전국청소년바둑대회' 등으로 나뉘어 열린 한판승이 펼쳐졌다.



국수산맥국제바둑대회에서 우승한 신진서 9단. (왼쪽) <전남도 제공>

이번 대회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16명의 세계적인 선수가 참가한 세계프로 최강전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바둑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지난 대회 우승자인 변상일 9단과의 재대결에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국내프로 토너먼트 결승에선 이원영 9단이 홍성지 9단을 꺾고 프로 입단 13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세계프로 최강전 우승자 신진서 9단은 75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준우승자 변상일 9단은 25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받으며,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 기간 중 국제아마추어 온라인 교류전, 우승자 알아맞히기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대회가 열린 강진, 영암, 신안에서 군민 동호인 바둑대회,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바둑 동호인 대상 지도다면기, 공개해설 등이 진행돼 바둑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청 근대5종, 문체부장관기 단체전 우승

서창완 개인전도 우승 '2관왕'

전남도청 근대5종팀이 최근 해남 우슬체육공원에서 열린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 팀을 이뤘 출전한 전남도청 서창완과 김민식은 총점 2970점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창완(전남도청)은 개인전 우승도 차지해 2관왕이 됐다.

서창완은 개인전에서 펜싱 3위, 수영 12위, 레이저런 1위, 승마 13위로 경기를 마무리해 종합순

위 1위(총점 1529점)에 올랐다.

서창완은 레이저런에서 핸디캡이 적용돼 1위와 39초 차이를 두고 출발했으나 1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김민식은 펜싱 23위, 수영 15위, 레이저런 4위, 승마 19위로 총점 1441점을 획득해 종합순위 13위를 기록했다.

강동운 전남도청 근대5종 감독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10월에 열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잘 준비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근대5종에서 2관왕에 오른 전남도청 서창완. <전남도 제공>



송원스포츠클럽 선수들이 온라인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광주 스포츠클럽 기초체력왕은?

25일까지 남부대서 지역대회 개최...7개 클럽 210명 참가

광주에서 '스포츠클럽 기초체력왕 지역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포츠 게임 콘텐츠, 동작인식센서 등을 활용해 온라인 디지털 스포츠대회로 진행된다. 광주에서는 광산남부스포츠클럽이 주관한다.

광주 지역대회는 오는 25일까지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내 경기장에서 7개 클럽 2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다.

경기종목은 비트즈프, 리듬댄스(베토벤바이러스), 사이드스텝, 하이니 등 4개 종목이다.

연령대별로 6개 부문 5명씩 한 클럽당 최소 5

명(1개 부문)에서 최대 30명(6개 부문)이 참가한다.

각 지역 예선 부문별 1, 2, 3위는 시·도대항전에 출전할 수 있다. 이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최종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시·도대항전은 오는 27일 광주, 부산 등을 비롯해 남부지역 8개 시도가 참가해 지역별로 열린다. 최종 전국 결승대회는 28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는 온라인으로 스포츠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광주지역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거침없는 역영

자유형 200m 1분42초대 진입

황선우(19·강원도청)의 맞수인 '수영 괴물' 다비드 포포비치(18·루마니아)의 역영이 거침없다.

이번에는 자유형 200m에서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한 이후 최고 기록을 내면서 세계 기록 경신의 기대감을 키웠다.

포포비치는 16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2022 유럽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2초97의 세계주니어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포포비치의 기록은 지난 6월 21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자신이 작성한 세계주니어 기록(1분43초21)을 0.24초나 줄인 것이다.

당시 포포비치는 한국 신기록을 세운 2위 황선우(1분44초47)보다 1초26이나 빨리 레이스를 마쳐 자신의 세계선수권대회 첫 메달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러고는 불과 두 달도 안 돼 자신의 기록을 또 단축했다. 이날 결승에서 포포비치는 2위 안토니오 디아코비치(스위스, 1분45초60)에게 무려 2초63이나 앞선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포포비치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현재 세계 기록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독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자유형 200m에서 1분42초대 기록을 가진 선수가 됐다. 펠프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에서 1분42초96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분42초대에 진입했다. 이어 200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비더만이 1분42초00으로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비더만의 기록은 13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 다만 펠프스와 비더만이 기록은 2010년부터 FINA가 '기술 도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폴리우레탄 재질의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하기 전에 나온 것이다. 전신수영복이 퇴출당한 뒤로는 포포비치의 기록이 세계 최고 기록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헌트, 한산: 용의 출현, 바다 탐험대 옥토포: 탐험선 대작전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헌트, 극장판 살아남기 시리즈: 인체에서 살아남기
4관	한산: 용의 출현
5관	비상선언
6관	헌트
9관	한산: 용의 출현, 비상선언
7관 씨네캐슬	비상선언, DC 리그 오브 슈퍼-팻,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씨네캐슬	헌트, 한산: 용의 출현, 탐간: 매버릭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 2022.08.23.(화)  
장소 :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2022\*08\*  
**光州國樂**  
일시 :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